

국민권익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3 05+06 vol.32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부패·공익침해 신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1398

정부대표민원전화
국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110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범정부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입니다.

www.epeople.go.kr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곳 !!

국민행복제안센터



- 온라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전화 110콜센터(국번 없이 110)
- 팩스 02-360-3531
- 방문·우편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87(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1층 국민행복제안센터

- 모바일 신청



CONTENTS

5+6 vol.32

기획특집

- | | |
|-----------------------|--|
| 04 커버 스토리 |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걱정 마세요
국민행복제안센터가 있으니까요 |
| 08 포커스 | 〈공직자 행동강령 10주년〉
공직사회 윤리기준 한단계 더 높인다 |
| 12 국민권익이 만난 사람 | 〈윤태범 방통대교수〉
구체적이고 실천성 강한
행동강령으로 발전해야 |

희망 전하기

- | | |
|--------------------------|--|
| 14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국민 |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기업과 시·군의 노력〉
청렴해야 사랑 받는다 |
| 18 세대공감 소통 | 세계인이 함께하는 즐거운 잔치
〈2013 지구촌 나눔 한마당〉 |
| 20 SNS Talk Talk | SNS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
| 22 110 행복 레시피 | 우리 아이 어디에 맡겨요? |

권익 더하기

- | | |
|------------------------|---|
| 24 국민권익이 간다 | 〈방화대로 조기 개설〉 현장 조정회의
공항동 주민의 14년 고민이 해결되었다 |
| 28 국민권익 Q&A | 국민의 어울함을 풀어드려요 |
| 30 Global ACRC | 주한 외국기업인 초청 정책 간담회 개최 |
| 32 숫자로 보는 국민권익 | 전국 194개 교육청 민원
국민신문고에서 One-Stop 처리 |

행복 나누기

- | | |
|-----------------------|---|
| 34 전통시장 나들이 | 문화의 꽃이 활짝 핀 골목시장
〈수원 뜻골시장〉 |
| 38 이야기 목민심서 | 『목민심서』에서 엿보는 공직자의 바른 자세 |
| 40 꼭 알아두세요! |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 사업〉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
| 42 건강 365 | 우리 아이는 뚱뚱? 아니면 통통? |
| 44 감성총전 | 제주, 문학, 그리고 힐링 |
| 48 뉴스 & 피플 |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충민원 접자서비스 외 |
| 50 독자의 소리 | |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걱정 마세요 국민행복제안센터가 있으니까요

지난 5월 6일 '국민행복제안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민행복제안센터는 정책과 제도 관련한 국민의 제안을 접수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 창구다. 정책으로 실현되길 바랐던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금 바로 문을 두드려보자. 나 혼자만의 아이디어가 어쩌면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묘안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말 그대로 '국민행복제안센터'가 아닌가.

글 김희정

여섯 살 아이를 둔 워킹맘 A씨. 평소 보육 문제로 고민하던 A씨에게 고민을 해결해 줄만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 아이디어가 국가 정책으로 실현되기만 한다면 A씨를 비롯한 워킹맘들의 보육 고민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 같았다. 하지만 아이디어만 있을 뿐, A씨의 생각이 정책으로 채택되어 실현되는 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였다. 국민의 소소한 아이디어를 들어줄 곳이 어디 있으랴 체념만하고 있던 그 때, A씨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뉴스를 듣게 된다. 바로 '국민행복제안센터 개통'이란 소식이었다.

정책·제도 관련 국민 제안 쉬워진다

지난 5월 6일 개통한 '국민행복제안센터'는 정부가 수립하도록 하고 싶은 정책이나 개선을 원하는 제도가 있을 때 국민이 직접 제안과 아이디어를 접수할 수 있는 창구다. 상설로 운영하게 되는 국민행복제안센터는 정부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전반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이 자신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온라인이나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는 제도다.

A씨처럼 아이디어는 있지만 어디에 제안해야 할지 몰라 묵혀두었던 내용들을 이제는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정식으로 제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행복제안센터에 대해 알게 된 A씨는 회사에서 바로 국민신문고에 접속한 후 그동안 생각해왔던 아이디어를 정리해 접수시켰다. 방법은 간단했다. 인터넷으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 접속한 후 상단에 있는 '국민행복제안'을 클릭하니 국민행복제안센터 페이지가 떴다. 이어 메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안하기'를 클릭하면 접수 페이지가 나타난다. 신청서작성 요령 안내에 따라 몇 가지 제안신청인 정보를 작성하고 제안내용을 정리하면 된다. 첨부할 파일이 있는 경우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평소 생각만 해왔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데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이제 A씨는 본인이 제안한 내용이 채택될지 그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본인의 제안이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메인 페이지에 있는 '나의제안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A씨처럼 컴퓨터를 자주 이용하고 컴퓨터 사용에 능숙한 국민이 아니라면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제안을 할 수 있다. 전화를 이용할 경우라면 정부대표민원전화 110콜센터(국번 없이 110번)를, 직접 방문해 접수를 할 경우에는 서대문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청사 1층에 마련된 상담센터를 찾으면 된다. 모든 국민이 불편 없이 행복제안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통합 창구가 구축된 셈이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홈페이지



나의 제안 내용, 어떻게 반영되나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제안이라도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꿰지 못한 구슬’에 불과할 것이다. 국민행복제안센터는 국민 한 명 한 명의 제안도 놓치지 않기 위해 통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했다. 인터넷과 전화,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된 제안은 700 개의 정부기관이 연결되어 있는 국민신문고 기반의 관리시스템을 통해 분류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절차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정책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권의위는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정책토론, 제도개선 등 권의위의 고유 기능과 연계해 이러한 제안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급한 현안이나 민생과 직결한 제안 등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증해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정책이나 행정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제안은 제도개선 업무와 연계해 대안을 마련한다.

또한, 기관의 제안처리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정책고객 등으로 구성된 국민행복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현장의 개선 체감도를 측정하는 한편 제안에 대한 주기적인 분석을 실시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좋은 정책 만든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지 않더라도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국민행복제안센터 홈페이지에 마련된 ‘정책참여하기’ 코너에는 현재 입법 예고된 조례를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정책토론이 진행 중이다. 정책토론은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정책 수립 단계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하나라도 더 듣고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다.

‘공개제안’은 다양한 분야의 국민 제안 내용을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코너다. 현재 공개 제안된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자동차 판매량 대비 서비스센터 의무 개설’, ‘임금피크 악용’, ‘공동주택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검사’ 등 국민이 실생활에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한 제안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댓글을 통해 제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나눌 수 있어 국가가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게 되었다.

‘우수제안’ 코너에서는 국민의 제안 내용과 이에 대한 담당부처의 친절한 답변이 소개된다. 제안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와 채택 여부를 바로 공개해 국민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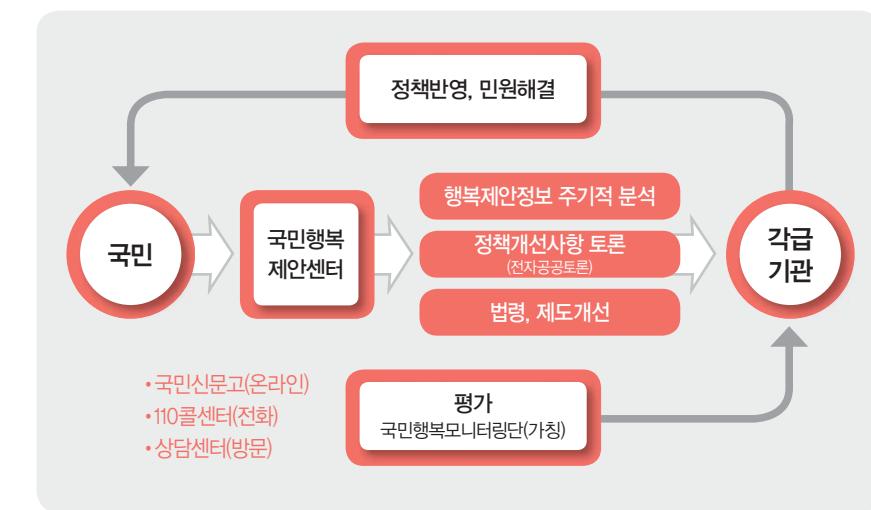
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결과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리고 답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정부부처의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다.

‘공모제안’에 의견을 제출하고 이 의견이 우수 제안으로 채택될 경우 이에 대한 포상까지 받을 수 있다. 5월 현재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국민제안 특별공모전’ 등 17개의 제안공모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공모제안이 이뤄질 예정이니 국민행복제안센터 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해 공모제안 내용을 확인하면 아이디어도 내고 상품까지 받는 행운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국민행복제안센터 개소를 기념해 6월 말까지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6월 말까지 제안을 신청한 국민 중 우수 참여자를 선정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5월 6일 문을 연 국민행복제안센터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뜨겁다. 5월 말 현재 하루에 2백 건이 넘는 제안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되고 있는데, 참여자 수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다. 앞서 소개한 A씨처럼 모든 국민이 묵혀두었던 아이디어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이에 대한 내용이 정책으로 채택된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가 열리는 것은 머지않을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면 훗날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이다.’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책 <꾸뻬 씨의 행복 여행>에 나오는 말이다. ‘지금’ 행복해지고 싶다면, 미루지 말고 ‘국민행복제안센터’의 문을 두드리자. 문을 두드리는 지금 이 순간, 행복은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 프로세스 |



공직자 행동강령 10주년

공직사회 윤리기준 한 단계 더 높인다

글 김희정

「공직자 행동강령」이 제정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제정 당시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줄 것이라는 높은 기대 속에서 시작했으나, 최근 공직자들이 연루된 크고 작은 부패사건들과 고위공직자의 성추행 사건들이 일어나며 국민들의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다. 또한 일부 기업의 ‘갑의 횡포’라 불리는 불공정한 업무행태에 대한 국민의 시선도 곱지 않다. 그 어느 때보다 공직자 행동강령이 더 강조되는 이때,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신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통합된 사회로 도약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근절의 초석이 되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공익과 사익의 갈등상황 등에서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금품수수금지, 알선·청탁금지, 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2003년 5월부터 시행되어 1,361개 공공기관의 160만 공직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이 제정된 이후 공직자들은 금품·향응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 직무 수행 시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공직자가 스스로 부패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이 부패이고 어디까지가 괜찮은지 기준을 정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권익위법에 따라 행정부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제정, 헌법기관은 자체규칙, 공직유관단체는 내부규정으로 제정·운영되고 있다. 권익위는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교육·홍보, 각급기관의 기관별 행동강령 심사 등 제·개정 관리,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등 총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각급기관은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고 클린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접수·처리를 진행하며, 금품 등의 반환과 교육·상담 등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공직자의 의식 전환 계기 마련

공직사회의 공정한 직무환경과 청렴문화를 선도해온 공직자 행동강령은 16개 금지조항을 제시하는 등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해왔다. 지난 10년 동안 시행되어 오며 공직자의 의식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다. 그동안 ‘정’이라는 미명하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접대나 경조 금품 제공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도 의식 전환에 도움이 되었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예방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접대·경조금품 제공, 외부강의 대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공직자들이 자율적으로 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 조사 및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춘지수수 등 관행적 업무행태 개선에 기여했다.

하지만, 공직자 행동강령이 실제 일어나는 부패에 대응하지 못해 공직사회의 부패근절에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와 함께 국민기대수준 상승과 공직환경 변화에 따라 10년 전에 제정된 현행 규정 자체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 10주년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토론자들.

시의성이 반영된 내용으로 행동강령 제정

공직자 행동강령은 적용력 강화를 위해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2005년 12월에 위반행위 신고창구 확대, 알선·청탁 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 등이 보완되었고, 2008년 11월에는 종교편향 금지가 추가되었다. 2008년 12월에는 직무관련자 범위 확대와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규정이 신설되기도 했다.

또한 언론 등에서 이슈화되어 국민의 질타를 받는 사례를 분석해 시의성 있는 행위기준을 마련했다. 2006년 3월에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대한 지침'이 신설되어 모든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보고 또는 사후보고를 하도록 했다. 2009년 6월에 마련된 '외국업체 간 계약업무 행위기준'을 통해서는 공공기관이 외국업체와 구매·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특화된 행위기준을 정했다.

'공무원 외부강의·강연 대가 상한기준'도 2012년 5월에 보강되었다. 공무원이 외부강연이나 강연 시 과다한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 지급 수준으로 대가기준을 맞췄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도 제정되었다. 지방의회의원의 비윤리적 행위의 차단을 위해 선출직 지방의회의원에게 적용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2010년 11월에 제정했고, 2011년 2월부터 시행 중이다.

공직자 행동강령 10주년 맞아 토론회 열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된 지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공직사회의 윤리기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지난 5월 31일 서울중앙우체국(Post-Tower)에서 개최했다.

정희대 박균성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안전행정부 송영철 감사관, 방통대 윤태범 교수, 대전대 박

홍식 교수, 건국대 이현수 교수, 고려대 장용진 교수 등 학계, 공공기관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윤태범 교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선언적 수준의 공직자 윤리규정을 구체화하고 공직윤리 발전을 위한 기반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여전히 공직자와 국민들의 인식이 낮은

것은 문제라 지적, 직무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실천강령(code of practice)을 제정하여 이해충돌 방지 중심으로 전반적인 법령 및 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고려대학교 장용진 교수는 외국과 민간의 윤리강령 사례를 소개하며, "외국에 나갔을 때의 행동, 고위공무원 또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 등 한국의 행동강령 내용의 확대가 필요하며, 미국의 행동강령과 같이 구체적이고 실제 적용 예, Q&A까지 포함하여 행동강령 운영의 모호함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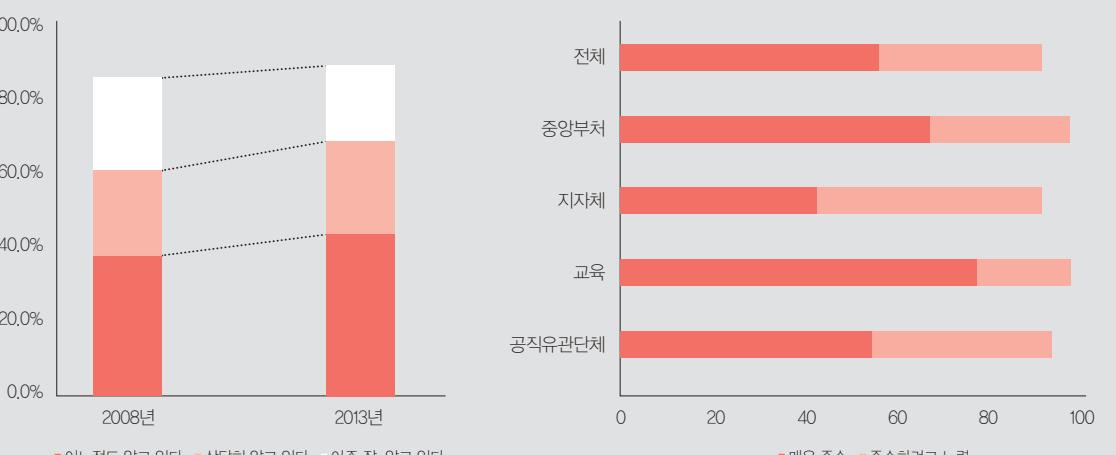
또한 건국대학교 이현수 교수는 "공직자 행동강령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행동강령의 모범으로서 국민 일반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더욱 고양된 청렴성과 품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안전행정부 송영철 감사관은 "공직자 행동강령이 더욱 실효성 있게 기능하기 위해 각급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이번 토론회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공직자 행동강령 개편을 위한 발전방향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직자 행동강령의 미비점을 보완해 개정을 추진하고, 세부 해석기준을 구체적인 지침으로 마련하는 등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공직사회에 정착시켜나가는 공직자 행동강령의 새로운 시작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행동강령 시행 10주년, 무엇이 달라졌다?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해 얼마나 준수하고 계십니까?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742개 기관의 2,338명의 공직자
- 조사방법 : 설문지 통한 서면조사

- 조사기간 : 2013.4.8.~4.19.
- 조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구체적이고 실천성 강한 행동강령으로 발전해야

공직자 행동강령 10주년을 맞아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 과정에 참여한 윤태범 교수를 통해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어려웠던 점, 그리고 앞으로 발전해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리 김희정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 취지와 제정 당시 어려웠던 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행동강령의 제정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9년부터입니다. 당시 공직자의 윤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고, 또 국민의 정부는 공직자의 윤리나 부패방지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논의가 되면서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고, 저는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행동강령 제정을 담당하였던 공직자분들과 외부 전문가 이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타 부처의 공무원들도 매우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선물과 경조사, 과도한 화환 수수 제한 등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규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공직자 행동강령이 시행되어온 후 공직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제정 초기에는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당연히 행동강령 세부 규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강령의 실천 이전에 이것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행동강령을 제대로 몰라서 강령을 위반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은 공직자 대부분이 행동강령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세부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식이 미흡한 경우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공직자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국민이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의식전환을 위해 어떤 점이 강조되어야 할까요?

공직자의 비윤리적 행동들 때문에 국민들은 공직자와 공직사회에 대해서 또

크게 실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의 윤리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 강령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른 관련 제도들도 잘 정비되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해충돌 방지의 체계화입니다. 공직자의 윤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이해충돌이 제대로 회피되지 못하여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행동강령의 일부 규정이 이해충돌의 방지와 관련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공직사회 전반적으로 이해충돌의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이에 대한 회피방안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공직사회의 윤리가 바로 서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인 이해충돌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인식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행동강령이 시의성 있게 계속 보완되어왔는데요,

향후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해나가야 할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행동강령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2003년 처음 제정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보완되었던 것도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직 일부 추상성이 강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고, 또 이중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마련되었다면 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같은 법률로 규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직자'라고 하면 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생각하는데, 사실 행동강령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입니다. 윤리강령이 있지만, 매우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실천성도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에 준하는 구체성과 실천성을 담보하고 있는 강령이 하루 빨리 제정,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희망 전하기

14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국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기업과 시·군의 노력)
청렴해야 사랑 받는다

18

세대공감 소통
세계인이 함께하는 즐거운 잔치
<2013 지구촌 나눔 한마당>

20

SNS Talk Talk
SNS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22

110 행복 레시피
우리 아이 어디에 맡겨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기업과 시·군의 노력

청렴해야 사랑 받는다

최근 화두는 단연 힘 있는 '갑'의 횡포다. 청렴하지 못한 권위적인 관행이 도를 넘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면 상무, 빵 회장, 식품업체 '밀어내기' 파문까지 굴비 역이듯 줄줄이 이어졌다. 횡포가 드러난 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국민 건강을 직접 해치는 사건이거나 대형비리 사건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은 즉각 반응했고 해당 기업들도 사건 초기에는 대충 얼버무리려다 사태가 견잡을 수 없이 커지자 대표 등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기까지 이르렀다. 청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음을 혹독히 깨달은 사건이었다. 글 김성숙 이슈데일리 기자



속드러나는 기업의 모습, 청렴해야 살 수 있다

국민은 이제 언제든지 부패 비리 현장을 사진에 담을 수 있고, 녹음할 수 있으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통해 누구든지 세상에 공개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라는 기계 덕분이기도 하지만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더 중요한 요인이다. 요즘 소비자들은 '청렴한 기업', '착한 기업', '윤리적 기업'의 제품을 사고, 그렇지 못한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는다.

제품의 질과 가격이 비슷하다면 소비자들은 청렴한 기업 문화를 지닌 '착한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는 추세다. 선진국일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윤리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가 "가격 품질이 비슷하면 윤리적인 소비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덴마크에서는 공정무역과 친환경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4배 정도 더 잘 팔린다. 청렴한 기업문화, 윤리적인 기업을 만드는 것은 이제 기업 생존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코즈마케팅에서 SRI까지 청렴, 비즈니스 아이템

돈을 벌기 위해서 착해져야 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마케팅 요법과 상품까지 고안해냈다. 신발회사인 탐스슈즈는 소비자가 한 캘레의 신발을 사면 또 한 캘레의 신발을 신발 없는 아이에게 기부하는 마케팅, 즉 코즈마케팅을 실시해 소비자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코즈마케팅은 사회가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와 기업이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국내에서는 CJ제일제당과 CU(구 훼미리마트)가 코즈마케팅을 벌인 바 있다. 생수를 살 때, 소비자가 100원씩 기부하면 CJ제일제당과 CU도 100원씩 기부해 생수 1병당 300원씩 기부금을 모으는 캠페인이었다.

윤리적 기업에만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SRI) 펀드도 관심을 끌었다. SRI 펀드는 사회공헌활동, 윤리경영 등을 실천하고 지배구조가 투명한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착한 펀드'로도 불린다. 골드만삭스, 시티은행은 물론 네덜란드 공무원 연금, 뉴욕 공무원 연금, 영국 대학 교원 연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이에 해당한다.

'청렴 명예감시관' '청렴 협약' 등 외부의 감시를 통한 청렴 실현

청렴 문화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기업들은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공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시민 투표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청렴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정치적인 생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다행히도 여러 기업과 지자체들이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먼저, 청렴 문화의 정착을 위해 외부의 참여를 유도하는 '담양군', '충청북도', '한국연구재단'의 사례를 꼽을 수 있다.

담양군은 군민들이 직접 군정을 감시토록 하는 '청렴 명예감시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담양군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군민은 읍면장 추천을 받아 감사관에 응모할 수 있다. 담양군은 이를 위해 6월 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청렴 명예감사관은 2년 임기 동안 지역에서 일어난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와 부당한 행정사항 및 모범사례를 제보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천안시는 지난 5월 14일 '청렴 거버넌스 기반 구축'을 위해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와 청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천안시는 앞으로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와 함께 청렴시책 추진 및 평가와 자문 활동을 벌이는 한편 청렴 교육분야와 연구 등을 협력하고 청렴 거버넌스 구축 등의 '청렴천안' 구현을 위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충청북도는 '청렴 후견인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지난 5월 20일 밝혔다. 충청북도는 부패에 취약한 인허가나 승인 신청 민원, 2000만 원 이상의 공사계약에 대해 민원처리부서로부터 접수 현황을 매일 통보 받아 견별로도 감사관실 직원이나 도민감사관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고양교육청은 학부모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간협력 청렴 거버넌스'를 구축했다고 지난 5월 14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부패 취약분야 공모사업에 참여해 사업방향 및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다. 고양교육청은 청렴 선포식, 청렴 교육, 청렴 UCC 공모전 등 다양한 흥

보활동을 추진해왔는데, 앞으로는 내부의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참여를 통해 더욱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담양군, 천안시, 고양교육청 등의 시도는 청렴을 향한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절대복종의 권위주의 기업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상사의 부패마저 눈감아주고 도와주는 것이 미덕으로 여길 만큼 잘 못된 관행이 뿌리 깊기에 이를 하루아침에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스스로 고치기 어렵다면 외부의 힘이라도 빌리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식약처·강릉시·서울시 상별제도 등 청렴 시스템 정착 노력

청렴한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청렴한 직원에게는 포상을 주고 부패비리 직원에게는 처벌을 강화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차별 규정을 구체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패·비위행위자에 대한 감찰시스템을 구축, 무관용 원칙 적용 등 '청렴 문화 정착 3개년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지난 5월 6일 밝혔다. 부패·비위행위자는 사회봉사 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징계를 받는 자는 당해 연도 성과급 C등급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이외에도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 추진비 등의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청렴한 공무원에게 포상을 시행해 주목을 끄는 지자체도 있다. 바로 강릉시의 경우다. 강릉시는 부서·개인별, 상·별에 따른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에 도움되는 활동을 한 부서나 개인에게 점수를 적립하고 연말에 순위별 포상을 실시하는 제도다. 청렴 교육을 하거나 청렴의 날을 운용하면 30~50점을, 청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최대 6점을 적립하며, 민원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최대 3점이 추가된다. 반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거나 범죄사실이 나타나면 최대 20점이 깎이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건설공사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반부패 청렴 건설행정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이 제도를 실시해 서울시는 '부패 방지 분야'에서 2013년 UN공공행정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반부패 청렴건설행정시스템'은 서울시 발주 건설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시민에게 알리는 '건설알림이', 하도급 대금 지급과정을 통합 확인·관리하는 '대금e바로'로 구성돼 있다. 건설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협력업체와 공정거래 기반 조성과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평가받은 예라 할 수 있다.

청렴 명함·청렴 계단·청렴 가이드북·청렴 표어까지 등장

서울 은평구와 대구시는 청렴 명함을 만들어 배포하여 국민들과 함께 청렴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 중인가 하면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단체도 늘었다. 광주시, 서울서부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 충주시, 농어촌공사 아산지사는 시민 대상 청렴 표어를 공모했다.

영등포구, 관악구, 성남시는 시민 대상으로 청렴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성남시에서는 공모 결과 부정부패 노출 위험도에 따라 부서를 구분하여 청렴 실천지수를 높이자는 '청백리 예지제'를 제안한 아이디어가 당선되었다.

전남 장성군은 청렴 백서를 발간했고 경찰청 신임 순경부터 경찰 청장까지 모든 경찰관이 지켜야 할 '경찰 청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스마일 계단을 만들어 '나의 작은 친절이 상대를 미소 짓게 합니다' '청렴 첫걸음이 중요합니다'라는 문구를 새겼다.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단체들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청렴 식권·정책실명제 등 종합대책 마련하는 단체들

단발적인 프로젝트나 이벤트로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추세다. 전남도, 서울

관악구, 구리시, 서울 강동구 등이 청렴 관련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부정비리 발본색원', '부패 취약 분야 제도 개선', '청렴정책 협력체계 구축' 등 4개 분야 28개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 관악구는 찾아가는 청렴 방방곡곡, 청렴 차차차(茶茶茶)방 등을 실시하고, 부패행위 방지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양심호루라기', '클린신고센터', '청탁등록시스템',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및 포상금제', '주민감사 옴부즈맨', '정책실명제' 등도 운영하고 있다.

구리시는 청렴 해피콜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연극공연, 보조금 단체 관계자 회계교육 등 8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사이버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실시, 비리공직자 BSC부서평가 반영 등 2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강동구는 매월 첫 번째 수요일을 '강동 청렴의 날'로 지정하고, 청렴동아리 청길이 주축이 되어 청렴 표어 릴레이, 청렴 방송, 청렴 피켓 퍼포먼스, 청렴 포스트잇, 청렴문 통과하기 등 월별 이색적인

다양한 청렴 아이템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같이 식사를 할 때 공개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렴 식권제'도 운영하고 있다.

다산 정약용은 "청렴함은 수령 본연의 일로서 온갖 선의 근원이고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은 아직 없다"라고 〈목민심서〉에서 강조했다. 청렴하지 않고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나, 착한 기업, 지속 가능한 경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청렴이 생존 전략이 되고 청렴이 비즈니스 아이템이 된 오늘, 2013 대한민국의 청렴 문화를 향한 다양한 시도들이 어떻게 열매 맺을지 참으로 궁금하다. 한 기업의 생사와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청렴 문화가 우리나라에 오롯이 뿌리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렴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라고 쓰여있는 서울 동대문구의
스마일 계단

세계인이 함께하는 즐거운 잔치

2013 지구촌 나눔 한마당

지난 5월 4일과 5일, 서울 한복판에서 즐거운 잔치가 열렸다.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지 않아도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 바로

〈2013 지구촌 나눔 한마당〉이다.

글 김현선 사진 김민우



이틀간의 세계여행

〈2013 지구촌 나눔 한마당〉은 1996년 10월 〈서울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던 행사가 해를 거듭하며 발전한 축제다. 그동안 외국 차매 우호도시의 참여가 점점 늘었고, 볼거리를 비롯해 먹거리와 즐길거리도 알차고 풍성해졌다. 세계 60여개 국의 전통음식과 세계의상 체험, 서울 자매도시의 공연을 비롯해 뮤직카페 등이 즐비한 도심 최대의 다문화 행사. 열여덟 번째를 맞는 올해는 5월 4일과 5일 이를 동안 서울광장과 무교동거리, 청계천광장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지구촌퍼레이드’로 막을 올렸다. 참가국 기수단과 14개

국 해외 공연단, 덕수궁 수문장 등이 참가하는 퍼레이드는 모든 이의 시선을 빼앗을 만큼 아름답고 화려했다. 이어 서울광장에서 개막식이 진행되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참석해 나눔과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지구촌하모니’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메인 행사로 5월 4일과 5일 동안 외국자매도시 전통공연과 세계풍물전, 세계음식전, 세계관광홍보전이 진행됐다. 특히 서울광장의 무대에서 선보인 외국자매도시의 전통 공연과 세계풍물전은 잔디밭에 앉은 사람들이 햇빛을 맞으며 휴식도 취하고 공연도 볼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세계풍물전과 세계 관광홍보전에도 각각 세계 60개국의 대사관이 참가했으며, 잔디밭을 빙 두르고 있

는 부스에서는 각국의 내로라하는 공예품과 전통품이 마치 세계를 서울광장에 압축시켜놓은 듯했다.

세계의 맛과 즐거움이 다 모였다

무교동길로 들어서니 부스마다 맛있는 향기가 솔솔 풍겼다. 세계의 음식을 부스마다 즉석에서 요리해 판매하고 있는 음식 냄새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제 갓 완성된 음식을 사 들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즐기는 등 그야말로 잔치가 따로 없었다. 입에 맞는 음식을 찾아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의 표정은 세계의 맛을 찾아 기행이라도 하는 듯 즐거워 보였다.

서울광장의 볼거리, 무교동거리의 먹을거리에 이어 청계천광장에는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한복을 비롯한 세계 의상 30여 벌이 전시된 세계의상 체험전과 나눔행사가 바로 그것. 또 나눔행사는 빈곤과 결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어린이들을 돋는 것을 목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봉사의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비영리단체와 함께 구성하였다. 2008년 월드비전에서 시작한 ‘사랑의동전밭’은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전달해온 사랑의 동전을 한자리에 모아 국내외 어린이들에게 쓰이는 행사로, 올해에도 수많은 동전으로 청계천 광장을 반짝이게 했다.

즐거운 한마당에 권익위도 함께

권익위도 즐거운 잔치에 함께했다.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과 제안을 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 소통 창구 ‘국민신문고’와 정부대표민원 전화 110콜센터를 홍보하기 위해 직원들이 직접 축제에 나선 것이다.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권익위 부스에서는 외국인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고 권익위 직원들이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를 도왔다. 그뿐 아니라 권익위 부스를 지나친 사람들을 위해 직접 거리도 나섰다. 각 나라의 부스에 그 나라의 언어로 작성된 홍보물을 배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길거리에서도 홍보물을 나눠주며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니 외국인들은 한국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에 놀라며 모두 반가워하는 기색이었다.

홍보에 나선 권익위의 정동률 주무관은 “아직 권익위의 외국인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외국인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언어로 접근 가능한 만큼, 세계인들의 참여와 관심이 지속되어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가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라며 많은 인파와 더운 날씨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홍보에 임했다.

세계는 하나, 하나로 뭉친 세계

이를 동안 펼쳐진 행사의 폐막식은 세계음식전·세계풍물전에서 활약한 국가 시상식과 외국 자매도시 전통공연단 고별인사, 그리고 ‘We are the One’이라는 기념 한마당으로 이어졌다. 세계음식전에서는 최우수국가에 에콰도르, 우수국가에 파라과이가 선정되어 모두의 박수를 받았고, 세계풍물전에서는 최우수국가에 터키, 우수국가에는 베트남이 선정됐다.

‘지구촌’이라는 말처럼 온 세계가 하나로 뭉쳐진 ‘2013 지구촌 나눔 한마당’. 모두의 얼굴에는 아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지만, 폐막식을 함께하며 다음을 기약하는 듯했다. 다음에는 얼마나 더 다채롭게 펼쳐질지 내년이 벌써 기대된다.

SNS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는 SNS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실시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보제공은 물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오가는 SNS 세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국민권익위 비전으로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를 선정하고, 오늘 오전 10시 국민권익위 청사에서 이성보 위원장이 600여명의 국민권익위 전 직원들과 함께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어요~^^ 파이팅!

(5월 6일)

자세히 보기 : <http://blog.daum.net/loveacrc/6550>

신뢰! 정말 믿고
맡기겠습니다.
(박진호)

멋진 핫라인이
되어주세요! 파이팅!
(이혜원)



부정한 입찰을 한 업체와 이를 눈 감아 주는 기관이나 담당자에게도 그에 험담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제한경쟁입찰에서 일정한 자격이나 실적이 있어야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데, 일부 입찰 참여 업체에서 허위의 실적이나 자격증서를 담당비율기관이나 증명기관의 공무원을 매수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아 수주한다면, 그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했던 선의의 기업들의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진국)



앞으로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낙찰·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부정한 알선이나 청탁을 한 청렴계약 위반업체는 계약을 해지당하는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권익위에서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선안 역시 국가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알선이나 청탁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5월 9일)

자세히 보기 : <http://blog.daum.net/loveacrc/6558>

정부민원을 상담하기 위해 운영 중인 110콜센터에 올 1~3월 중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를 분석한 결과 KT를 사칭하거나,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특정 사이트 연결을 유도해 소액결제를 발생시키는 「스미싱」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ㅠ_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피해입으신 분 있나요?

(4월 30일)

저도 문자 받았는데 다행히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궁금해서 검색했더니 소액결제 사기더라고요... (한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수원보훈지청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故 흥모씨가 자해행위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월 1일)

자세히 보기 : <http://blog.daum.net/loveacrc/6544>

아주 혼명하신 판결입니다! 모든 사건과 사고 또는 질병 등에는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건의 본말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과관계를 인정하시는 참으로 혼명하신 판결입니다! (@SH02632)



언제 어디서나 제약 없이 정부정책 관련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앱을 다운받으시면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월 16일)

자세히 보기 : <http://blog.daum.net/loveacrc/6574>

검증도 안 된 판매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게 문제 같네요.
(유기원)



상품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거래 사이트인지 꼭
확인해야겠네요. (김민경)



다운 받아 참여 해야겠어요~~
(절대종사)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중고물품을 구매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6개월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인터넷 중고장터」 관련 민원 건수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 접수된 관련 민원이 914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동기대비 79%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ㅠ_ㅠ 혹시 인터넷을 통해 중고물품을 구매할 경우 가급적 안전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하니 모두~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피해가 없도록 해요~^^ (5월 6일)

자세히 보기 : <http://blog.daum.net/loveacrc/6549>

소셜미디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친구가 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여러분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공유하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요즘, 다음 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댓글이 소개된 분들에게는 모바일 음료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이 소개된 분들은 이메일(imbr@korea.kr)로 핸드폰 번호를 보내주세요.)

facebook



[https://www.facebook.com/
loveacrc](https://www.facebook.com/loveacrc)

twitter



[https://twitter.com/
loveacrc](https://twitter.com/loveacrc)

me2DAY



[http://me2day.net/
loveacrc](http://me2day.net/loveacrc)

yozm



[http://yozm.daum.net/
acrc0229](http://yozm.daum.net/
acrc0229)

Daum



[http://blog.daum.net/
loveacrc](http://blog.daum.net/
loveacrc)

우리 아이 어디에 맡겨요?



“3월에는 제가 복학해야 하는데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하나요?”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민원인은 출산 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로 학업과 보육을 병행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 지원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봄을 원하는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일하는 부모를 둔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 등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정부의 지원도 이뤄진다. 하지만 3월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맞벌이 가정에만 정부 지원금이 지원되고 민원인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100%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답답해하던 민원인이 제도에 대해 건의하고 싶다며 110번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맞벌이 가정은 오히려 수입이 좋잖아요. 저는 3월부터 복학해야 해서 더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민원인은 수입이 없는 학생의 경우에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해 주길 원했다. 민원인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한 뒤 담당자를 통해 답변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얼마 후 여성가족부로부터 답변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가 건의한 내용이 수용되었어요. 이제 부모 중 한 명이 학생이어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2013년도 지침에 반영된다고 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경기가 좋지 않아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가정이 늘고 있다.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엄마들은 부모님이나 전문 기관에 맡길 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답답한 엄마들의 마음을 헤아려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정이 늘어나길 바라본다.



국민권익위원회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정부 민원에 대한 모든 궁금하고
불편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대표민원전화 서비스입니다.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는
한 상담원의 상담 내용을
소개합니다.



권익 더하기

24

국민권익이 간다

〈군사시설 이전을 통한 방화대로 조기 개설’ 현장 조정회의〉
공항동 주민의 14년 고민이 해결되었다

28

국민권익 Q&A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요

30

Global ACRC

주한 외국기업인 초청 정책 간담회 개최

32

숫자로 보는 국민권익

전국 194개 교육청 민원
국민신문고에서 One-Stop 처리



SH공사 마곡사업관에서 열리고 있는 현장 조정회의.

‘군사시설 이전을 통한 방화대로 조기 개설’ 현장 조정회의 공항동 주민의 14년 고민이 해결되었다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기관 책임자들이
공항빗물펌프장에서 현장 상황을 전해 듣고 있다.

‘군사시설 이전을 통한 방화대로 조기 개설’ 현장 조정회의가 지난 5월 27일 SH공사 마곡사업관에서 열렸다. 방화대로 개설을 위해 1999년부터 군부대 이전이 협의되어 왔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으며 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커져갔던 것. 이에 대해 지난해 5월 공항동 주민 970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했고, 1년여 동안 관계기관과의 조정 과정을 거친 결과 군부대로 가로막혔던 방화대로가 전 구간 개통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들이 고충이 컸던 만큼 관심이 뜨거웠던 현장 조정회의를 소개한다. 글 김희정 사진 김명훈

공항빗물펌프장 주변 현장 브리핑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지난 5월 27일, 강서구 공항동 공항빗물펌프장에 많은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군사시설 이전을 통한 방화대로 조기 개설’ 집단 민원 해결을 위한 권익위의 현장 조정회의를 지켜보기 위한 주민들의 발걸음이었다. 지난 14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군부대 이전’과 ‘방화대로 개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초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빗방울이 무색할 정도로 뜨거웠다.

현장 브리핑은 그동안 쟁점으로 부각되어온 군부대 주변에서 열렸다.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을 비롯해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백승주 국방부 차관, 노현송 강서구청장, 이종수 SH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서구청 환경환경 도로과장의 브리핑이 시작되었다.

1971년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방화대로 전체 구간 5,800미터 중 군사시설과 저촉되는 490미터 구간이 군사시설 이전 협의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지역발전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으며,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심각한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현 군부대 주둔지의 원활한 이전을 통해 방화대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민원 내용이 현장에서 소개되었다.

군부대 주변 방화대로 개설과 관련해 서울시가 1999년부터 국방부와 수십 차례 이전 협의를 진행했지만, 협의 도중에 국방부의 군사시설 이전방식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

면서 해결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 이에 주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단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이었다.

주민 대표로 나선 방화대로 개설 비상대책위원회 이충호 위원장은 “방화동에서 지금 이곳 공항빗물펌프장까지 오는 길이 18년 전에 이미 개설이 되었는데도, 부대 이전 문제로 전 구간이 개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토지보상과 건물철거가 완료된 후 군부대 주변이 현재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도로 개설 중단으로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는 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담당이었던 권익위 이명호 사무관께서 1년 동안 적극적으로 조율을 해주셨으니 오늘 공항동 주민들이 만족하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지난 1년 동안 이어온 주민과 관계기관의 소통

현장 브리핑에 이어 본격적인 현장 조정회의가 SH공사 마곡사업관에서 열렸다.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시, 국방부, 강서구, SH공사 등의 피신청인과 신청인 대표 이충호, 박영옥, 심재봉, 박인석 씨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시작되었다. 현장 조정회의를 지켜보기 위해 공항동 주민과 취재진이 몰려 회의장의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우선 공항동 주민 970명이 지난해 5월 2일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이후 1년여에 걸쳐 진행된 조정



군사시설 이전을 통한 방화대로 개설 현장 조정회

○ 주관 : 국민권익위원회 ○ 일자·장소 : 2013. 5. 27. (월) / SH공사 마곡사업관 회의실 (3층)



1. 원쪽부터 이종수 SH공사 사장,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백승주 국방부 차관, 이성보 권익위 위원장, 민원 신청인 이충호, 심재봉, 박인석, 박영옥 씨
2. 노현송 강서구청장이 주민들에게 군부대 이전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3. 공항동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는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

과정이 소개되었다. 권익위는 2012년 7월 3일, 신청인 대표와 피신청인의 각 입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도로저축부분 우선 개설을 위한 각 기관의 검토를 요청했다. 그해 7월 30일, 권익위는 서울시의 재정사항을 감안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군부대 이전비용을 마련하는 특별회계 방식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9월 14일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사

면, 그 다음해인 2013년 1월 4일에 국방부가 이전 후 보지 작전성 검토를 완료했다. 이후 4월 5일까지 4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의견조율을 했고, 4월 10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준비한 조정서를 확정했다.

공항동 주민의 바람대로 방화대로 드디어 열린다

권익위의 조정 내용 발표 이후, 신청인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 그동안의 고충이 커진 만큼 주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공항동 주민을 대표한 그들은 '군부대 조기 이전'에 입을 모았다. 도로 개설이 우선 진행되긴 하지만 군부대 이전 역시 서둘러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특히 주부 대표로 나온 박영옥 씨는 "2003년에 도

로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부대 주변에 건물철거가 이뤄졌는데, 그대로 방치되다 보니 이곳이 우범지역이 되었습니다. 노약자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주변 환경 개선이 절실히 바랍니다. 저희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협의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라며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군부대 주변의 치안이 열악하다는 것에 송구함을 느낍니다. 조정 회의가 끝나고 직접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라며 주민을 위로했다.

심재봉 씨는 "10여 년 동안 끌어오던 문제가 이제야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군부대 이전이 신속히 이뤄질지 걱정이 앞섭니다. 군부대 이전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그 점은 안타깝습니다. 저를 포함한 주민들의 마음이 그러할 것입니다."라며 걱정을 내비쳤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군부대 이전은 확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군부대 이전에 시간과 절차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변의 도로 개설을 먼저 추진하는 것입니다. 강서구와 서울시, 국방부가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군부대 이전이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라며 군부대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인석 씨는 "그동안 선거 때마다 많은 지역 일꾼들이 나와 군부대 이전과 도로개설에 대한 공약을 했는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장서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줘 감사합니다. 더욱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기관 책임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당부했다. 이충호 씨는 "지난 1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내준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정을 통해 공항동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그동안 공항동 주민들의 고충이 커진 만큼 조정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피신청인으로 참석한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백승주 국방부 차관, 노현송 강서구청장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앞으로 공항동 주민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현장 조정회의를 진행한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이 "오늘 각 기관들이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겠다는 서명을 했습니다. 상호 합의된 내용이 성실히 지켜지는지 국민권익위원회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라고 하자 일제히 박수가 터져 나왔다.

14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고충이 권리위의 중재로 해결되는 순간, 주민들은 주민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소통이 낳은 결과라며 저마다 기뻐했다. 그리고 오늘 각 관계기관의 책임자들의 약속이 잘 지켜져 공항동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했다. 억울함이 없는 국민을 위해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조정회의'는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 방화대로는 경기 부천시 오정동 오전대로 삼거리와 한강 올림픽대로를 연결하는 폭 40m, 연장 4.8km, 왕복 8차선 도로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요



[국민권익 Q&A]에서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인 행정심판, 또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 내용 등을 Q&A 형식으로 재구성해 소개합니다.



제조업 지사인 저희 회사는 구내식당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환경개선계획을 승인받고 개선지원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던 중 저희 회사가 본사와 통합되었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은 본사와 지사의 고용보험이 통합되면서 지사의 고용보험과 사업자등록이 소멸됐고, 업종이 다른 2개의 사업장이 통합되면 증가 근로자 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선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본사와 통합됐더라도 지사의 설비와 근로자 등을 본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했는데, 개선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의 공장설비와 근로자를 본사가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사업자등록이 소멸된 것은 통합에 따른 결과에 불과합니다. 통합 전과 후 그대로 본사와 지사의 부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지사업무에 해당하는 생산부 소속 직원들을 기준으로 증가 근로자 수를 산정해낼 수 있기 때문에 지방고용노동청은 *개선지원금을 예정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구내식당, 목욕시설, 기숙사, 탁아시설 등의 고용환경 개선시설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수가 1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선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와 증가된 근로자 1명 당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병·의원에서 간판 명칭을 표기할 때 전문의 자격도 없으면서 전문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형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심한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권익위는 2012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병·의원에서 간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수십 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중 전문의도 아니면서 전문의처럼 병·의원 간판에 표기(홍○○성형외과의원)하는 행위, 고유명칭과 진료과목을 동일한 크기로 표기(홍○○의원 진료과목 피부과)하는 행위, 고유명칭보다 진료과목을 더 크게 표기 하는 행위를 해온 병·의원 25곳에 대해 간판 표기를 시정(교체) 하라는 행정처분을, 그 처분을 따르지 않은 1곳은 업무정지 15일을 내렸습니다. 다만, 현수막 제거 등 경미한 행위는 자체 시정토록 처분했습니다.

권익위는 병·의원에서 간판 명칭을 잘못 표기하여 국민들이 진료에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등의 공익침해행위(불법 간판 명칭 표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했습니다.



저는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내에서 조경수농장을 운영해왔습니다. *생활대책기준일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다른 매장 앞으로 과세신고를 했는데, 이에 대해 LH공사는 당시 거래명세서나 과세신고자료 등 영업실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업자군 생활대책용지 수급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적증빙은 하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영업을 한 것이었는데, 이주자 **생활대책 용지 수급 부적격 판정이 난 것은 억울합니다. 이에 대해 LH공사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되었기에,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생활대책기준일은 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전인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정하고 있어 영업보상의 기준일인 보상계획 공고일보다 대개 1년~2년 정도 앞서게 된다.

** 생활대책용지 : 개발되는 지역 내에서 영업, 영농 및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공급되는 일반상업용지나 균린생활용지.



LH공사는 「용지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자진 이주한 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생활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영농·영업을 한 자로서 영농·영업보상을 받은 자 등에게 20m² 또는 27m² 정도의 생활대책용지를 감정가격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원인께서는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내에서 실제로 영업을 해오고 계셨는데도, 이주자 생활대책용지 수급대상 부적격판정을 받으신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민원인의 조경수농장에 대한 토지임대차계약 및 임료 지불, 전력 및 면세유 수급, 관계기관 확인 등의 사실, 사업자등록 전과 후의 영업규모나 양태에 변화가 없는데도 사업자등록 후에는 과세자료로 영업실적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LH공사가 영업보상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생활대책기준일 이전에도 민원인의 조경수농장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실적을 증빙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관련 유추자료가 있다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영업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 그 적격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지난해 8월 사망한 저의 아버지는 6·25전쟁 중인 1950년 12월초 군에 입대해 훈련을 마치고 8사단 16연대로 배치되어 전쟁에 참전하였지만, 중공군에 포로가 되면서 군 병적기록상에는 입대했던 그 달 말에 '불명'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아버지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된다며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했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풀고자 행정심판을 신청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방부·육군본부 등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증거조사 결과, 민원인의 아버지가 8사단 16연대 소속으로 안흥전투에 참전했고, 이후 중공군에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있으며,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된 후 1954년부터 4년간 다시 군 복무를 한 뒤 만기 전역한 사실이 있고, 함께 입대하여 안흥전투에서 중공군에 포로가 된 후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2000년 국내로 송환된 인우보증인의 송환기록과 증언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당시 안흥전투의 상황에 대한 역사기록 등 민원인의 아버지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민원인의 아버지가 1951년 안흥전투에 참전하였다가 적군에 포로가 된 후 재입대해 만기전역하였고, 탈영 등 군무를 무단으로 이탈하였거나 국방의 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정황도 없어 병적기록상 불명처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로 판단해 국립묘지에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한 외국기업인 초청 정책 간담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외국기업 CEO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이 간담회에서는 청렴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 성과와 외국기업인들이 건의했던 애로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이 소개되었다.

정리 김희정



외국기업 CEO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하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외국기업 CEO들의 애로사항 듣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지난 4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국기업 CEO 초청 정책간담회'는 지난 2008년 권익위 출범 이후 해마다 개최되어 올해 6회를 맞았다. 이 자리에서 권익위는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주한 외국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팻 제인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보잉코리아 사장),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토니 슈라이바이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회장(에보닉 데구사 코리아 사장), 제프리 존스 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나카지마 토오루 서울재팬클럽 회장(한국미쓰이물산 사장) 등 다수 외국기업 CEO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부패예방 노력과 부패 척결 의지를 강조했으며,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정책과 성과를 외국인 CEO들에게 집중 소개했다.

청렴 사회와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

권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외국인 CEO들에게 지난 201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민간부문의 부패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신고에 따른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소개하며, 해당 법에 따라 외국인 기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등 우리나라의 공익과 관련된 분야에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해당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신고자 보호에 외국기업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청탁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권익위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제정 배경과 취지를 소개해 외국 경제인들의 적극적인 공감을 얻었다.

이성보 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시행되면 한국 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부패 행위가 근절되고, 나아가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기업 투자 환경도 훨씬 개선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한 외국기업 CEO들과 기념촬영하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외국기업인들의 건의사항, 얼마나 개선되었나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개최되었던 간담회에서 외국기업인들이 건의한 각종 애로나 불편사항에 대해 정부가 기울인 노력과 후속조치가 소개되었다.

지난 2010년 제3차 간담회에서 제기된 '정부의 계약업무 체결시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에 대해서 공공부문 계약과정에서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공공계약의 해제·해지를 의무화하는 청렴계약제 법안이 마련되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는 후속 조치가 설명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공계약 입찰·계약 및 이행 과정에서 부패가 적발될 경우 해당 공공계약은 해지되게 된다.

'조달·계약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좀 더 엄격한 수준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2011년 간담회 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인 조달청이 추진한 개선안을 소개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직무관련자와의 저녁식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식사 시 제3자를 배석하게 하는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제한' 규정과 직무와 관련한 사람의 방문은 최소 1일 전까지 사전 신청하도록 하고, 상급자에게 해당 방문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민원방문 사전예약제를 2012년 10월에 도입한 바 있다.

'엄격하고 투명한 법 집행을 통해 부패공무원들이 다시는 공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2011년 간담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도 소개되었다. 해당 내용은 퇴직자의 부정청탁·알선 행위제한 및 퇴직 후 편법 재취업 방지 등 공직사회 전관예우 균절방안 마련(2011년 6월, 행안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공무원에 대한 신고 시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확대(2012년 3월, 권익위), 일정규모 이상 상장기업이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시행(2012년 4월, 법무부), 공직사회의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제한, 공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이해충돌 방지 등 공직자 행위규범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2013년 진행중, 권익위) 등이다.

권익위는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된 주한 외국 경제인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참가자에게 전달하는 등 소통을 통해 외국기업의 활발한 투자와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194개 교육청 민원 국민신문고에서 One-Stop 처리



행복 나누기

교육 관련 민원은 각 교육청 사이트만이 아닌 국민신문고에서도 접수·처리되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국민신문고 시스템과 통합되어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77개 교육지원청의 온라인 민원이 국민신문고로 일원화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국민신문고의 One-Stop 처리로 전국 교육청 소관 모든 민원에 대해 부처 간 협조처리, 온라인 이송·이첩과 통합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교육분야 민원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에 더 충실히 전달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로는 '국민신문고 원-스톱 민원서비스'와 '유사사례 표출서비스'를 들 수 있다. 먼저 '국민신문고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교육청으로 온라인 민원을 제출 시 기관을 잘못 선택해 신청했더라도 소관기관으로부터 손쉽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유사사례 표출서비스'는 유사한 민원 처리사례를 자동으로 보여주어 단순 질의성 민원은 Q&A를 열람함으로써 별도의 민원신청 절차 없이 즉시 해결할 수 있게 했다.

국민신문고는 모바일 웹 서비스(m.epeople.go.kr)도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이용 할 수 있다.

한편, 2013년 1분기 온라인으로 접수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민원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여 회신한 비율은 99.7%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분기별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점검'과 함께 매년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34

전통시장 나들이

문화의 꽃이 활짝 핀 골목시장
<수원 뜻골시장>

38

이야기 목민심서

『목민심서』에서 엿보는 공직자의 바른 자세

40

꼭 알아두세요!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 사업〉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됩니다!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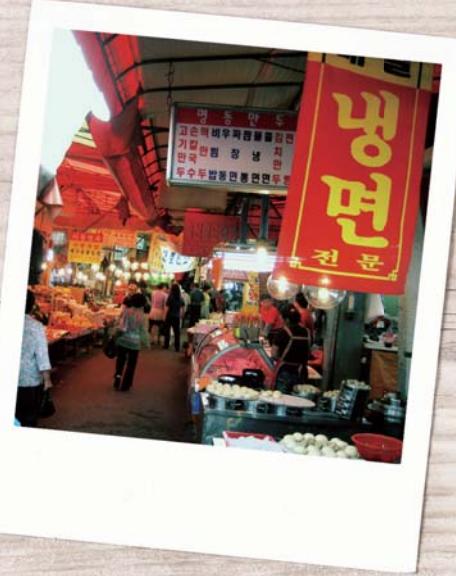
건강 365

우리 아이는 똥똥? 아니면 통통?

44

김성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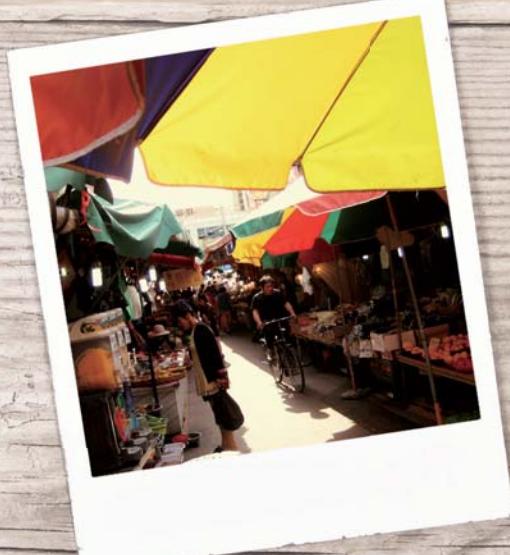
제주, 문화, 그리고 힐링



문화의 꽃이 활짝 핀 골목시장 수원 뜻골시장

수원 성곽의 남문인 팔달문(보물 402호) 인근에 위치해 있는 '뜻골시장'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문전성시 프로그램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사람 간의 소통으로 만들어내는 뜻골문화 덕분에 뜻골시장은 평일 낮에도 손님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재래시장의 부흥을 꿈꾸는 뜻골시장의 특별함을 소개한다.

자료 〈한국의 시장〉(페이퍼북)



문화가 접목된 새로운 재래시장으로 변모되고 있는 '수원 뜻골시장'

뜻이 있는 고을의 시장

수원뜻골시장은 1975년, 외지에서 온 상인들이 골목에서 나물과 채소를 팔면서 형성되었다. 현재도 채소, 과일, 생선을 포함한 1차 식품과 반찬, 전, 튀김 등 조리·가공식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뜻골시장은 4m 폭의 길 양쪽으로 상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골목 시장으로 아담한 매력이 있다. 좁은 시장길을 따라 획 한 바퀴 돌면 20분이 채 걸리지 않지만 '맛 좋은 멸치' 가게의 주인 할머니 손자인 꼬마와 눈인사를 나누고, '오복떡집'에서 꿀송편 하나 맛보고, '남문뻥튀기'에서 뻥튀기 한 판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조선시대 화성을 축성할 때 경관을 위해 3개의 연못을 만들고 북지, 남지, 동지라 했는데 이 중 동지 일대를 '뜻골'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 명칭이 현재 '뜻골시장'에 남아있는 것이다. 호랑이 신을 믿고, 큰 연못이 있었던 낮은 산 아래의 천연 마을 뜻골. 뜻이 있는 고을의 시장, 뜻골시장. 이제는 오가는 사람들의 어깨와 어깨가 부딪치는 골목 시장으로 매일매일 뜻골 사람들의 밥상을 즐겁게 해준다.



(왼쪽부터)
동굴레, 검은콩 등 다양한 건강 식재료 위에 달린
조롱박이 정겹게 느껴진다.

'남문뻥튀기'를 찾으면 '뻥이요!'라는 추억의 소리로
들을 수 있다.

못골시장에서 발행하는 '못골누우스'

100여 가지의 반찬들을 파는 '대호반찬'은 못골시장
최고의 인기 가게다.

못골시장의 완소 가게들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름 없는 장터였던지 이제는 못골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을 지키는 상점들이 빠빠이 들어서 있다. 팔달문 시장 투어가 시작되는 곳, 못골시장에 가면 넉넉한 정을 파는 완소 가게들이 우리를 반긴다.

뻥! 남문뻥튀기 | 남문뻥튀기는 전통시장의 향수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가게다. 주인아저씨가 “뻥이요, 뻥”하고 예고에도 움찔하게 되지만, 그 경험도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진다. 뻙튀기 기계 한쪽 면에 매직으로 ‘뻥’이라 쓴 손 간판과 못골시장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못골누우스’가 뻙튀기 가게 한쪽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손님들이 행여나 지루해할까 세심하게 배려한 뻙 사장님의 센스가 돋보인다.

맛좋은 멸치 | ‘맛좋은 멸치’라는 가게 이름에 반했다. 멸치가 맛이 좋아? 가게의 이름을 지은 장본인은 주인 할머니의 귀여운 손자라고 한다. 여섯 살인 손자가 멸치는 맛이 없지만 ‘맛 있는 멸치’라고 이름 지으면 아이들이 많이 올 것 같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란다. 세발자전거를 타고 시장 골목골목을 누비는 꼬마의 솔직한 생각이 담겨 있는 간판이다.

대호반찬 | 못골시장에서는 밑반찬과 함께 그날그날 밥상에 올려 먹을 수 있는 전, 튀김류의 조리식품을 맛깔스레 내놓는다. 먹음직스러운 색깔만큼이나 맛도 좋다. 원하는 것을 골라 포장해 갈 수 있다. 대호(大湖)는 커다란 호수라는 뜻이다. 호수처럼 넉넉한 인심으로 깨끗한 반찬을 만들자는 생각에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대호반찬에서 파는 반찬의 종류는 무려 100여 가지. 싱싱한 재료를 찾아 일주일에 서너 번은 새벽 가락시장을 다녀온다는 사장님의 정성이 반찬에 배어 있다.



시장 자체 방송을 통하여
수원 못골시장만의 이야기를 펼쳐가는 '못골 온에어'

문화와 정이 가득한 곳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8년부터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하 문전성시)을 시행하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끌 만한 이야기’가 있고, ‘근처에 관광지를 비롯하여 사람들을 불러들일 만한 요소’가 있으며, ‘전통시장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시장을 문전성시 프로젝트 시범 시장으로 선정했는데, 수원못골시장도 포함되었다.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못골시장은 ‘작은 골목시장’에서 ‘이야기가 있는 시장’으로 거듭났다. 대표적으로 좋은 글과 음악 그리고 사연을 전해주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라디오 방송 ‘못골 온에어’가 있다. 또 ‘못골 레시피’와 ‘5촌1장 프로젝트’로 손들은 상품을 믿게 됐고 못골시장이 푸근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시장 내에 마련된 ‘못골 휴게터’는 못골시장을 찾는 모든 이에게 즐거운 추억을 제공하는 일상의 쉼터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못골 온에어’라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상인과 상인 사이에 대화가 늘어나고 정이 깊어졌다는 것이 큰 변화라고. 잠시라도 가게를 비울 수 없는 시장 상인들에게는 시장이 곧 세상이기 때문이다. 문화생활이 뭐 따로 있나.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나름의 방식을 즐기면 그것이 곧 시장만의 문화가 아닐까. 문화는 멀리 있지 않다. 아주 가까운 곳, 그들의 일상에 그대로 묻어나는 것이다. 수원못골시장에는 못골시장만의 문화가 꽂되고 있다.

상인들과 고객들이 함께 배우고 나누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와글와글 학교’. 어린이들이 잡곡을 이용해 정감 어린 못골시장의 모습을 표현했다.



『목민심서』에서 엿보는 공직자의 바른 자세

글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성균관대 석좌교수



200년이 지난 오늘날 다산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갈 길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물론 20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바뀌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다.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다산의 이야기가 다 맞는 건 아니다. 일례로 오늘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환경 문제는 다산의 저서 어디를 봐도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산이 고민하고 고뇌했던 것들은 오늘날 처한 현실과 다를 바가 없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아껴 쓰는 데 있다

지금은 시장이나 군수를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지만, 당시는 임금이 각 지방관을 임명했다. 지방관이 부임해 갈 때의 차장, 즉 어떤 말을 타고 가고, 어떤 가마를 타고 가고, 어떤 옷을 입고 가고, 식구는 몇 명 데리고 가고 등등을 적어 놓은 게 1면 부임 2조 '치장(治裝)'이다. "호화롭게 새로운 옷 입고 가지 마라. 아무리 높은 벼슬에 임명됐다고 하더라도 평소 입던 옷을 입고 가라. 반드시 책을 갖고 가라. 그중에서도 「대전통편」이나 「경국대전」 같은 법에 관한 걸 갖고 가서 법대로 집행해라."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애민지본(愛民之本), 재어절용(在於節用), 절용지본(節用之本), 재어검(在於儉), 검이후능령(儉而後能廉), 염이후능자(廉而後能慈), 검자(儉者), 목민지수무야(牧民之首務也).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아껴 쓰는 데 있고, 아껴 쓰는 것의 근본은 견소함에 있다. 견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견소해야 자애로울 수 있으니, 견소함이 야말로 목민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다산은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아껴 쓰는 데 있다고 했는데, 절용(節用)이 간단한 것 같지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자기 돈 같으면 안

쓰는데 국가 돈이고 정부 돈이다 보니 막 써 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온갖 비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절용은 공직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다산이 자기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남겼다.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귀향 살면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재산이 없다. 다만 너희에게 글자 두 자를 유산으로 남겨준다. 하나는 근(勤)이오, 하나는 검(儉)이다. 근검 두 글자를 준다. 너희가 근검 두 글자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논 100마지기 200마지기보다 좋다."

겸소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절약해서 사용할 수 없다. 쓰는 것 이 적으면 수입이 적어도 괜찮지만,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함부로 쓰고 평생 허비하면 항상 부족하다. 청렴해야 자애로울 수 있다. 또한 자애로운 것이야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일이다. 따라서 백성을 통치 하려면 먼저 절용에 힘쓰라고 말하는 것이다.

공직자의 기본은 깨끗한 마음이다

2편 울기 2조는 '청심(淸心)'에 대해 이야기다. 청심은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공직자의 기본이다.

염자(廉者), 목지본무(牧之本務), 만선지원(萬善之源), 제덕지근(諸德之根), 불령이능목자(不廉而能牧者), 미지유야(未之有也).

청렴은 목민관의 본질적인 임무다. 만 가지 선의 균월이고 모든 덕의 뿌리다. 청렴하지 아니하고서는 목민관을 잘할 수 없다.

오늘날 부패한 고위공직자들은 뇌물을 받고서도 절대 안 받았다고 펄쩍 뛴다. 그러다가 증거가 나오면 받기는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다고 말한다. 그렇게 해야 법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직자는 법적인 관계를 떠나서 단돈 10원도 받으면 안 된다. 염자(廉者), 천하지대고야(天下之大賈也). 고대탐필령(故大貪必廉), 인지소이불령자(人之所以不廉者), 기지단야(其智短也). 공자왈(孔子曰) "仁者安仁(인자안인), 지자리인(知者利仁)." 여위령자안령(余謂廉者安廉), 지자리령(知者利廉).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다.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공자는 "인자는 인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자는 인을 이롭게 여긴다."고 말했는데, 나는 "청렴한 자는 청렴함을 편안히 여기고, 지자는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고 하겠다.

다산은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가장 큰 장사라고 말한다. 저 고(賈)자는 가격을 뜻할 때는 '가'라고 읽지만 '장사한다'는 뜻으로 말할 때는 '고'라고 읽는다. 즉, 여기서는 이익이 남도록 파는 것을 의미한다. 청렴이 어떻게 장사가 될까. 청렴이야말로 가장 큰 이익이 남는다고 역설적으로 말한 것이다. 다산은 청렴한 사람이 진짜 큰 욕심쟁이라고 했다. 최고의 지위까지 오르려는 공직자는 청렴해야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대탐필령(大貪必廉)이 바로 그런 의미다.

다산의 청렴 사상은 염자안령(廉者安廉), 지자리령(知者利廉)이 여덟 글자 속에 들어 있다. 공자는 목표가 인(仁)인데 다산은 목표가 청렴이다. 인은 너무 높은 성현의 이야기이므로 일반인이 인의 경지에 이르기 힘드니 한 단계 낮춰서 청렴을 이야기한 것이다.

율기집(律己箴曰), 유사지령(惟土之廉), 유녀지결(猶女之潔), 구일호지점오(苟一毫之點汚), 위종신지점결(爲終身之玷缺).

오직 선비의 청렴은 여자의 정조와 같다. 단 털끝 하나라도 더러워지면 죽을 때까지 결점이 된다.

'울기'에서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어떻게 인간적인 수양을 하는지에 대해 다루었다고 했는데, 이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청심'이다. 다산은 선비의 청렴이 여자의 정조와 같다라고 했다. 그래서 단돈 10원이라도 먹으면 죽을 때까지 결점이 된다는 것이다. 뇌물을 받았을 때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완전 범죄가 될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다.

화로지행(貨賂之行), 수불비밀(誰不秘密), 중야소행(中夜所行), 조이

창의(朝已昌矣).

뇌물 주고받는 행위를 누가 비밀로 하지 않으리만은 한밤중에 행한 바도 아침이 되면 소문이 짹 퍼지게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소문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 라"라는 우리나라 속담은 참으로 기가 막힌 말이다. 뭔가 껌새가 있어야 소문이 난다. 아무리 비밀리에 뇌물을 주고받아도 다 들기게 되어 있다는 의미다.

「목민심서」에 이런 말이 나온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사또를 찾아와 "사또, 이 밤중에 아무도 안 봅니다. 사또하고 저밖에 모릅니다. 빨리 받으십시오"라고 말하자 사또가 "너 이놈 네가 알고 내가 알고 별씨 둘이 알지.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안다. 별씨 넷이 있는데 왜 둘밖에 모른다고 하냐." 다산은 아래야 청렴한 사또라고 말했다.

선위목자(善爲牧者), 필자(必慈), 욕자자(欲慈者), 필령(必廉), 욕령자(欲廉者), 필약(必約), 절용자(節用者), 목지수무야(牧之首務也).

목민관 노릇을 잘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롭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 청렴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절약해야 한다. 아껴 쓰고 조절해서 사용하는 것은 목민관의 첫 번째 임무다.

공적인 물건을 보기를 사적인 물건으로 봐라, 다시 말해 정부 돈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얘기다. 자기 돈은 단돈 10원도 안 쓰면서 국가 돈이라면 부담 없이 평생 쓴다. 오늘날 공직자 중에서 자신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용지절(私用之節), 부인능지(夫人能之), 공고지절(公庫之節), 민선능지(民鮮能之), 시공여사(視公如私), 사현목야(斯賢牧也).

개인적인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능히 할 수 있지만, 공금

을 절약하는 사람은 드물다. 공적인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아껴야 어진 목

관이다.

'시공여사(視公如私)'라는 문구를 외워 두었다가 공직자를 만날 일이 생긴다면 "시공여사하시오"라고 말해 보기 바란다. 이렇게 문자를 넣어서 말하면 공직자가 마음을 바꿔 나랏 돈을 마치 자신의 재산을 아끼듯이 마음을 바꿀지도 모를 일이다.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 사업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됩니다!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돋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 사업.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업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어 시행될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글 백경미



수면 위로 떠오른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사업의 문제점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사업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2009~2013년까지 5년간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 명 양성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국회, 감사원, 전문기관, 언론 등에서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 사업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으며, 검토해본 결과 실제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통합규정 부재, 중개업체의 연수비 부정수급 빈발, 선발과정의 불공정 사례 빈발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청년 해외취업·인턴·봉사사업 운영과정의 부패요인을 제거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권익위가 최근 사업을 수행하는 12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수행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의 부재이다. 기관별로 개별적인 내부 규정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유사·중복사업 통제 등 사업 전체에 대한 통합관리가 미흡해 효과성 없는 사업이 난립, 예산이 낭비되었다. 또한, 기관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중개업체에 지나치게 의존해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는 등 통제기능이 미흡했다.

두 번째로는 해외취업 및 인턴 관련 중개업체 관리의 부적정을 들 수 있다. 연수를 운영하는 중개업체에 대한 전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연수과정 운영 중 연수생 피해 사례가 발생해 참가자들의 민원이 잦았던 것.

선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선발 조건에 맞지 않게 참가자를 선발하는 등 선발과정의 투명성이 부족 했으며, 인턴 및 봉사사업에서 중복참가자가 발생하여 참가자 간에 형평성을 저해하였다. 또한, 정부 재정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약자인 취업취약계층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총괄하는 해외인턴사업만 '취업취약계층은 선발 시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외취업·봉사사업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들의 참여가 매우 적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일부만을 평가하거나, 평가 결과 미흡한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부족하고, 결과 또한 공개하지 않는 등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관리의 취약함이 드러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예산낭비와 부패요인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제도개선 권고 대상기관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외교부 등 12개 중앙부처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22개 사업수행기관이며, 조치 기한은 올해 12월까지이다. 먼저 기관들은 기관에서 각각 추진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통합 규정을 마련, 사업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한다.

또한, 연수를 운영하는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중개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자급한 지원금의 환수를 의무화한다. 부실 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해외사업에 일정 기간 참여를 배제하고 총괄부처 및 사업수행기관 홈페이지에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참가자 선발기준도 마련된다. 사업수행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참가자를 선발하지 못하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중복참가자에 대한 기준도 마련, 형평성 있게 운영한다. 취업취약계층 참여율이 일정 비율 미만인 사업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미흡하므로 일정비율 이상 참여를 의무화하고 총괄 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수행기관의 해외사업에 대하여 총괄부처 주관하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성과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평가 결과 미흡한 사업은 조정 및 통폐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는 기관별 홈페이지 및 해외사업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한다.

이번 권익위가 권고하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예산낭비와 부패요인이 줄어 해외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이며,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에 속하는 청년들의 해외일자리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개선 권고 주요 내용

1. 다수 사업에 대한 총괄·조정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2. 중개업체(연수운영기관)의 연수비 부정수급 방지 강구
3. 사회적 약자인 취업 취약계층의 참여 확대방안 마련
4. 해외사업 부문별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 의무화



우리 아이는 뚱뚱? 아니면 통통?

할머니 품에 꽂 안겨 두 손 가득 맛난 것을 쥐고 볼이 터져라 먹는 아이의 모습은 마냥 귀엽지만 했었더랬다. 잘 먹는 것이 남는 거라 여기던 시절, 내 아이가 안 먹어 걱정이었던 많은 부모들이 이제는 너무 먹어 걱정이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소아 비만, 결코 남의 집 얘기가 아니다. 글 백경미

“아빠, 난 뚱뚱이 아니야. 통통이야.” 인기 예능프로그램 ‘아빠-어디가?’에서 뭐든지 맛있게 먹어 먹방(먹는 방송)계의 샷별이라 불리는 7살 윤후가 ‘뚱뚱하다’ 놀리는 아빠에게 하는 말이다. 통통하고 귀여운 외모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윤후이지만 뚱뚱이라 불리는 것만큼은 싫었던 것. 실제로 윤후는 통통한 정도이다. 그럼에도 요즘 의사의 권유로 다이어트에 돌입했다고 하니. 통통한 것도 마냥 보기 좋다고는 할 수 없나 보다. 그도 그럴 것이 성인 못지않은 먹성과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어진 운동부족 비만아들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8년 사이에 소아·청소년을 비롯한 20대 미만의 비만 환자가 4배 가까이 급증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2012년 ‘학교건강 검사 표본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비만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성인 비만보다 더 위험하다고 알려진 소아·청소년 비만이 계속해서 증가. 세계 1위에 오를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소아기 비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10~13세에 시작된 과체중 및 비만의 85%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방 세포의 크기가 증가하는 성인 비만과 달리 소아 비만은 지방 세포의 수가 증가하는데, 한번 늘어난 세포 수는 쉽게 줄어들지 않아 성인 시기까지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인기에 힘들게 체중 감량을 하더라도 지방 세포 수가 줄지 않아 쉽게 재발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아이들이 뚱뚱해지면 체질량 지수가 높아져 호르몬 불균형으로 성장판이 일찍 닫혀 키가 잘 크지 않으며, 무릎과 발목, 허리 등 각종 관절·척추 질환이 발생한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에도 잘 걸리게 되어 어린 나이에 일찍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아이가 뚱뚱해지게 된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먹는 것에 비해 움직임이 적어진 것. 어린

이와 청소년 중 45%가 전혀 운동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보면 놀라울 따름이다. 영양은 과다로 섭취하는데, 운동 등의 야외활동은 멀리하니 어쩌면 살이 찌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TV가 컴퓨터가 학원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빼앗고 있다. 고무줄 놀이를 하고 공을 칠 수 있는 공간도 점점 사라져 간다. 이대로 둔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아이들의 비만에 심각성을 느낀 미국이 달라졌다. 어린이 3명 중 한 명이 비만이라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만 퇴치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 영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3년 전부터 이 캠페인을 직접 앞장서 주력하고, 한 해 120조 원이 넘는 비용을 비만 치료에 투자한 덕분에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아동 비만율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급하다. 비만 치료는 미용 목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병원에 와서 진단·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초고도 비만 환자의 경우 상당수 초·중·고 시절부터 체중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이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탓이 크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에 주목하고 나섰다. 비만 치료를 위해서는 철저한 식이요법과 자기관리가 필요한데 저소득층은 이러한 여건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 소아 비만이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된 만큼 계속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겠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은 개인과 가정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우선 아이들이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등 몸에 좋지 않은 식품 섭취를 줄이고 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

하다. 또한, 활동량이 적은 아이에게 살이 쪘다고 무조건 적게 먹이기보다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등 자주 움직이고 운동하는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소아 비만의 원인은 어른에게 있다. 아이의 식습관, 생활습관은 대개 부모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잘 먹으면 다 키로 갈 거라는 낭설은 외면하자. 점점 옆으로 커져만 가는 우리 아이, 혹시 소아 비만이 의심된다면 지금 당장 하루 생활과 식단을 체크해봐야겠다.

**소아 비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 부모가 비만이면 자식의 80%, 부모 중 한쪽이 비만이면 40% 정도에서 소아 비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마가 비만이라면 아이와 같이 체중감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아침 식사는 반드시 하고 천천히 먹도록 한다. 또한,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며 식사하지 않는다.
- 무리한 금식, 절식을 요구하지 말고 즐겨 먹는 음식이나 조리법을 바꾼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많이 넣고 요리를 하거나, 간식으로는 과일을 먹어 주는 것 이 좋다.
- 외식을 줄이고, 인스턴트 식품은 피하도록 한다. 식단은 아이와 함께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TV 시청, 컴퓨터 또는 게임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하지 않도록 한다. 2시간 이내가 좋다.
- 아이와 함께 운동하거나 야외활동 시간을 늘린다. 억지로 운동을 하게 하는 것보다 게임이나 놀이 등을 통해 아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한다.
- 10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아이의 규칙적인 수면을 돋는다.
- 체중을 너무 빨리 줄이려고 서두르지 않는다. 아이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 극복하도록 노력한다.



제주, 문화, 그리고 힐링

삼다도라 불리는 제주도에는 돌, 바람, 여성 말고도 많은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지식과 감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문화 콘텐츠가 그것. 보기 위해, 걷기 위해, 쉬기 위해 지금까지 제주도를 찾았다면 이제 채우기 위해 찾아보자. 제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문화 체험을 통해 감성을 채우다 보면, 일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진정한 힐링을 느끼게 될 것이다. 글 김현선



문화와 예술의 중심 제주도립미술관

제주에는 '도깨비도로'라고 불리는 신비의 도로가 있어 연중 그곳을 찾는 관광객으로 붐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발길을 잡는 또 하나의 명소가 있으니, 바로 '제주도립미술관'이다. '제주도립미술관'은 찾는 사람이 곧 주인공이고 창작자가 되는 아름다운 곳. 사람의 아름다움이 자연에 녹아 날 수 있도록 주변과 후정에 쉼터와 공연장, 공원 등을 갖추었다. 그런데 제주도립미술관이 요즘 들어 더 매력적으로 변했다. 그것은 세계 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 샤갈, 당신의 피카소〉 전 때문이다. 특히나 이번 작품들은 베네수엘라 국립미술관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128점으로 국내에서 쉽게 보기 어려워 모두가 한국에 오기만을 기다리던 작품들이다. 팝아트의 명사 앤디 워홀, 입체파 피카소, 색채의 마술사 샤갈, 몬드리안과 미로 등 35명의 작가와 베네수엘라 출신의 작가 19명까지. 생각만 해도 감동적인 세계적 명화와의 만남. 현대 미술사를 뛰어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를 놓치지 말자.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680-7

문 의 064-710-4300

홈페이지 <http://jmoa.jeju.go.kr/>

관 램 레 어른 10,000원 / 청소년 5,000원 / 어린이 4,000원

〈나의 샤갈, 당신의 피카소〉

기 간 2013년 3월 19일~2013년 7월 14일

관 램 레 어른 10,000원 / 청소년 7,000원 / 어린이 4,000원



가장 제주스러운 제주돌문화공원

제주돌문화공원은 스스로 이렇게 홍보한다. '자연을 먼저 생각하고/ 자연과 함께 한다는 원칙 위에/ 제주의 정체성, 향토성, 예술성을/ 한껏 살려 조성하는 제주돌문화공원'

이보다 제주다운 공원이 또 있을까? 화산 폭발로 생성된 제주도는 집을 지을 때도, 밭의 경계에도, 그리고 무덤에도 항상 돌을 사용하는 돌 문화의 중심지다. 이런 제주의 특성을 살려 조성한 제주돌문화공원은 제주의 형성과정과 제주민의 돌 문화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생태관이자 체계적인 박물관. 꽃자왈 지대에 조성된 자연휴양림인 교래자연휴양림에 아늑하게 품긴 모습을 하고 있다.

박물관에는 상설전시와 기획전시, 그리고 공연을 볼 수 있는 오백장군갤러리와 제주의 초가를 그대로 재현한 제주전통마을을 관람할 수 있다. 또 선사 시대부터 고려 시대를 거쳐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제주인의 삶과 죽음, 신앙과 관련된 돌 문화를 볼 수 있으니 제주 그 자체를 온전히 보는 것과 같은 것. 제주의 전설 '설문대활망과 오백장군'을 주제로 한 상징탑, 연못 등이 조성된 공원도 있어 스토리가 담긴 산책도 가능하다.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9
문 의 064-710-7731
홈페이지 <http://www.jejustonepark.com/>
관 람 료 어른 5,000원 / 청소년·군경 3,500원



제주 역사의 보고 국립제주박물관

육지와 동떨어진 제주는 선사시대 아래로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스스로 발전시켜왔다. 시간이 지나서는 한반도와 주변국의 문화교류 거점으로 주변의 여러 문화를 접했고, 그 문화와 제주의 문화를 융합시켜 독자적인 해양문화를 정립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이렇듯 독특한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전시하는 고고 역사박물관이다. 선사·탐라·고려·조선 등의 주제로 이루어진 상설 전시관과 더불어 일정 기간 기획하는 특별전시,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프로그램과 문화공감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전시는 <제주에서 만나는 부처의 미소>로, 6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시에서는 한국 불교조각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불상의 예술성과 상징성을 살펴볼 수 있다. 문화프로그램으로는 <토요 박물관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6월 22일까지 공연과 강연, 영화 등을 국립제주박물관 내 강당에서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며 홈페이지(<http://jeju.museum.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261 국립제주박물관
문 의 064-720-8000
홈페이지 <http://jeju.museum.go.kr/>
관 람 료 무료 (단, 유료 특별 전시 제외)



푸른 바다를 그대로 아쿠아플라넷제주

바다를 껴안은 듯 팔을 뻗고 서 있는 아쿠아플라넷제주. 그 모습이 성산 일출봉과 석지코지의 비경과 잘 어울려 자연스레 밤길이 닳는 곳이다. 아쿠아플라넷제주는 아시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 전시 생물이 500 여 종, 전체 수조 량은 10,800톤에 달하며 특히 매인 수조 '제주의 바다'는 초대형 수조 안에 고래와 상어, 가오리 등 다양한 물고기가 가득해 IMAX 영화관을 연상시킨다. 해저터널도 좋은 볼거리. 머리 위로, 팔 옆으로 달을 듯 헤엄치는 바다생물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그뿐일까. 단순한 수족관을 넘어 복합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각종 교육과 공연도 상시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제주 해녀 물질 공연'은 제주 여성의 강인함과 희로애락이 담긴 삶을 보여주는 공연으로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다. 또 '러시아 싱크로나이즈' 공연과 '하늘을 나는 펭귄', '춤추는 물범' 등 해양 동물의 생태 설명회도 하루에 여러 번 진행된다.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1
문 의 064-780-0900
홈페이지 <http://www.aquaplanet.co.kr/jeju/>
관 람 료 일반 37,600원 / 중·고등학생 35,100원 / 어린이 32,600원

NEWS & PEOPLE



03

'2013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및 고충 민원처리 자침 전달회의' 개최



04

[청렴성공 프로젝트] 본격 추진



06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충민원 점자서비스 개시

01 명절 상납·친구 아들 채용한 지자체 신하 기관장 적발

충남지역 지방자치단체 신하 기관장이 부하직원들로부터 명절 떡값과 휴가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정기적으로 상납받고, 친구 및 전직 간부직원 인사청탁으로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권익위의 부패 조사점검팀에 의해 적발되었다. 해당 기관은 전 직원이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1인당 매월 20~30만 원씩 초과 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이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권익위 점검팀이 적발한 날짜와 청사 폐쇄회로 TV에 촬영되어 보관된 기간(약 3개월)에 대해서만 허위 초과근무를 인정했으나, 권익위는 관계직원으로부터 매년 상습적으로 허위로 초과 근무 시간을 기록해 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 등에 통보하여 관계자에 대한 문책 및 환수 등 조치를 요구하고, 타 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실태조사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02 불량 식품 근절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정책토론회 개최

범정부 온라인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운영하는 권익위가 4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불량 식품 방안 및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산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디어 다음(www.daum.net)과 공동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식품정책과 관련된 각종 연구기관, 학계와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불량 식품 근절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네티즌들은 정부의 식품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미디어 다음(www.agora.media.daum.net)을 이용해 자유롭게 개진했으며, 전문가들의 발제문, 연구자료, 의견, 통계자료 등도 미디어 다음에서 특별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 및 연구 결과, 네티즌들이 제시한 다양한 제안 등은 종합 분석되어 국무총리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부처에 제공하고, 앞으로 이들 부처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03 '2013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및 고충 민원처리 자침 전달회의' 개최

권익위 이성보 원장은 올해 강력히 대응할 3대 공직 부패로 '민생 침해 부패', '국가재정 손실 부패', '공직자들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선정하고 「2013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및 고충 민원 처리 자침 전달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성보 위원장은 조그만 부패도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을 모든 공공기관이 인식한 만큼, 기관별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사소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으로 고충 민원이 더 많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고충 민원 전담부서 운영, 갈등조정 컨설팅, 고충 민원 처리 우수기관 인증제 활성화 등을 담은 「고충 민원 주요업무 처리 자침」도 함께 기관 담당자들에게 전달하였다.

04 2013년 [청렴성공 프로젝트] 본격 추진

외교부와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남 당진시, 전남 화순군,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환경공단 등 7개 기관이 올해 권익위가 추진하는 「청렴성공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권익위가 해마다 1~2월에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본 프로젝트는 청렴도 수준과 추진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관을 선정한다. 해당 기관은 대해서는 올 한 해 동안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과 청렴도가 낮은 원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역량진단과 함께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취약분야의 제도나 관행 개선, 청렴문화 확산 등 다양한 반부패 기술을 전수받게 된다. 권익위는 긴밀한 업무 협력과 추진의지를 다지기 위해 4월 17일 2013 「청렴성공 프로젝트」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이성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각적인 반부패 노력에도 국가청렴도 등 각종 청렴지수가 정체상태이고, 부패사건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청렴성공 프로젝트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대학교, 강원도 강릉시, 경남 김해시, 경북 구미시, 경북 청송군, 균로복지공단 등 6개 기관에 대해서는 청렴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05 다문화 가족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권익위가 운영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가 지난 4월 18일에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됐다. 이번 상담은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고충 및 애로를 상담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요 개선사항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권익위는 상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입국, 교육, 복지, 노동 등 전문분야 조사관으로 상담반을 운영하고, 이어서 다문화가족과 자조모임 및 관련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도 이어갔다.

한편, 권익위의 이동신문고는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장애인과 근로자 등 다양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대상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06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충민원 점자서비스 개시

지난 5월 28일, 권익위와 (사)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고충민원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고충민원 점자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권익위에서 점자로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회신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연합회의 점역 교정사가 번역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충민원 점자서비스의 홍보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점자로 고충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 결과 또한 점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서도 음성파일, 확대문자, 전자 텍스트 파일 등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권익위는 신체장애 등으로 고충이 있어도 제기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국민을 위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응답하라 397세대’ 기사는 바로 제 이야기 같더군요. 읽는 동안 그 시절을 아련히 떠올려봤답니다. 스마트 시대에 큰 걱정인 ‘스미싱을 조심하세요!’ 기사도 좋았습니다. 신종사기수법에 대한 기사를 더 다양하게 접해서 예방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갈수록 재밌어지는 <국민권익>과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활동을 기대 하겠습니다. 외풍에 맞서서 국민의 보루가 돼주세요.

오창현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월동

<국민권익>의 알찬 내용을 좋아하는 독자입니다. 그런데 서울 위주의 이야기가 많아 늘 아쉬웠죠. 그래서 ‘아이와 함께 떠나는 이야기 속 여행’이 참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의 전시·공연소식을 기대해도 되겠죠? <국민권익>이 전국의 소식을 전해주리라 믿습니다.

강현주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3동

‘다시 읽는 목민심서’ 덕분에 다산의 애민 정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실감했습니다. 권익위도 다산처럼 애민 정신으로 국민과 함께한다고 생각하니 독자로서 자부심이 들기도 하고요. 목민심서와 더불어 앞으로 조사관의 현장이야기도 꾸준히 진행된다면 좋겠네요.

최병갑 전라남도 화순군 회순읍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 드려요’를 보면서 내 주변 이야기 같다는 생각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이렇게 돈 없고 힘없는 소외계층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성심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숙희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국민권익이 간다’를 읽고 이동신문고의 기능이 잘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권익위가 중재하면 양쪽이 한 걸음씩 양보해 합의안도 도출하고 고충 민원이 잘 해결되니 믿음이 갑니다. 혹시 ‘독자 문예’ 신설 계획은 없으신지요? 국민의 일상생활이 수필과 시 등으로 나타난다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어디에서든지 <국민권익>을 볼 수 있도록 더욱 많이 보급되면 좋겠습니다.

우도형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들을 엽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첨해 전통시장상품권을 드립니다. 5+6월호 응모모감은 6월 30일까지며, 3+4월호 당첨자 상품은 6월 28일 등기우편으로 발송 예정입니다.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3. 8. 25 ~ 9. 1 충주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World Rowing Championships, Chungju, Korea



입장권 예매 안내

예매기간 2013. 5. 7 ~ 8. 14

예매처 신한은행 인터파크 sports.interpark.com

ACRC QUIZ

- 1 정부가 수립하도록 하고 싶은 정책이나 개선을 원하는 제도가 있을 때 국민이 직접 제안과 아이디어를 접수시킬 수 있는 청구로 5월 6일 개통한 센터는? (4페이지 참조)
- ① 고객만족센터
 - ② 국민민원센터
 - ③ 국민행복제안센터

- 2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을 위해 공직자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위기준은? (8페이지 참조)
- ① 공직자 윤리강령
 - ② 공직자 반부패강령
 - ③ 공직자 행동강령

- 3 수원 성곽의 남문인 팔달문(보물 402호) 인근에 위치해 있는 시장으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사업, 문전성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곳은? (34페이지 참조)
- ① 수원 조원시장
 - ② 수원 봇골시장
 - ③ 수원 권선시장



입장권구입문의처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기획본부(사업부)

TEL 043)850-6690~2 FAX 043)851-0767

신한은행 ☎:043-857-8950 / 인터파크 ARS 1544-1555(스포츠3번)

www.2013chungju.org

후원 HYUNDAI 신한은행 충주기업도시 KORAIL 코레일유통

충청북도 충주이문인 FURSYS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보내는 사람

주소 _____

□□□ - □□□

독자엽서



받는 사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 담당자 앞

1 2 0 - 7 0 5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3 05+06 vol.32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독자들과 함께하는 〈국민권익〉이 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아이디어, 격려, 충고가 필요합니다.
더 나은 〈국민권익〉지를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더 크게 듣겠습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3.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권익〉에 바라는 점을 적어주세요.

4.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구독자이지만 앞으로 **구독을 희망하지 않는 분**은 아래 빙칸을 채워 주십시오.

이름 _____ 주소 _____ -

- 현재 구독자가 아니지만 앞으로 **구독을 희망하는 분**은 아래 빙칸을 채워 주십시오.

이름 _____ 주소 _____ -

- 구독자 정보(이름 등)가 잘못되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십시오.

봉투에 인쇄된 정보 _____ 실제 정보 _____ 연락처 

* 위 내용은 메일(imbr@korea.kr)로 보내주셔도 되며, 회신이 없는 경우는 계속 구독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ww.acrc.go.kr

독자엽서를 기다립니다.

국민권익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소식지 제작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ACRC QUIZ

1 정부가 수립하도록 하고 싶은 정책이나 개선을 원하는 제도가 있을 때 국민이 직접 제안과 아이디어를 접수시킬 수 있는
장구로 5월 6일 개통한 센터는? (4페이지 참조)

- ① 고객만족센터 ② 국민민원센터 ③ 국민행복제안센터

2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을 위해 공직자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위기준은? (8페이지 참조)

- ① 공직자 윤리강령 ② 공직자 반부패강령 ③ 공직자 행동강령

3 수원 성곽의 남문인 팔달문(보물 402호) 인근에 위치해 있는 시장으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문전성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곳은? (34페이지 참조)

- ① 수원 조원시장 ② 수원 못골시장 ③ 수원 권선시장

